

KIA 필승조 전상현 “부상만 없으면 자신 있다”



전상현

올 초반 평균자책점 1.97 호성적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호투 지난해 힘든 재활 후 다시 부상 다치고 나서 스스로에게 실망 “팀 위해 풀타임 활약” 각오 다져

“실망했다”며 올 시즌을 돌아본 KIA 타이거즈 투수 전상현이 한계에 도전한다. 2022시즌 KIA 필승조 전상현의 시작과 끝은 좋았다. 2019 시즌 마무리 역할을 했던 전상현은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9월 30일 데서야 1군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캠프를 소화하고 시즌을 출발한 2022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성적도 좋았다. 4월 위밍업을 끝낸 뒤 5, 6, 7월 32경기에 나와 1.97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2패 2세이브 13홀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상에 전상현의 걸음이 멈췄다. 7월 31일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8월은 재활군에서 흘러보냈다. 9월 17일 다시 1군으로 돌아온 전상현은 이후 7경기를 던지면서 아쉬운 시즌을 마무리했다. 전상현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다 제로가 됐다. 그래서 올 시즌 배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다치고 나서 스스로 실망했다. 나름 (부상) 신경 썼다고 했는데 왜 소홀했을까 생각

도 들고 후회도 많이 남았다. 작년에 재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겪고도 또 그 시간을 겪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찾아온 부상에 전상현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8월을 보냈다. 전상현은 “어깨와 팔꿈치에 신경 많이 썼고, 보강도 많이 했다. 부상 이후 복귀 시즌이었고 잘하고 있었다. 페이스도 좋았고, 몸도 엄청 좋았다”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었다. 성적과 싸워야 하는데 부상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팀에도 많이 미안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가을 야구를 해보지 못했던 만큼 전상현은 매년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말했다. 전상현은 “몸상태가 100%는 아니었는데 가을야구 하나 보고 던졌다. 가을야구 때문에 버렸다. 꼭 던져보고 싶었고,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3으로 뒤진 7회 말 전상현이 기다렸던 가을 마운드에 올랐다. 전상현은 첫타자 배정대에 계 조구에 좌전 안타를 맞은 뒤 베데랑 박경수와 마주했다. 박경수가 보내기 번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전상현이 1루에 견제구를 던졌다. KIA 팬들로 가득 찬 3루에서 전상현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이 나왔다. 전상현은 연달아 4개의 견제구를 던졌고, 양쪽 관중석이 달아올랐다. 포커 페이스로 기싸움을 한 전상현은 결국 박경수의 방망

이를 헛뜯게 해 삼진을 잡았다. 이어진 심우준과의 승부에서도 전상현은 경제를 멈추지 않았고, 2루 직선타로 투아웃을 만든 뒤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팬들의 환호를 듣고 싶었다”면서 웃은 전상현은 “솔직히 많이 설레고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긴장이 안 됐다. 느낌은 달랐다. 정규시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응원 자체도 달랐다. 원래 긴장을 안 하기도 하고, 사인난 것도 있어서 견제했는데 팬들의 환호와 열기에 힘을 받았다.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일부러 더했다”고 설명했다. 전상현의 활약에도 KIA는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상현은 “1경기에서 끝나서 아쉬웠다. 더 높은 곳에서 하고 싶다. 매년 한국시리즈를 TV로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던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부상’이 더 큰 무대를 향한 전상현의 새 시즌의 키워드다. 전상현은 “올해 안 아팠으면 개인 성적어든, 팀 성적어든 커리어 하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다. 안 아팠으면 팀에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성장했을 것인데 부상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 개인 성적은 생각 안 하고, 부상 없이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다. 부상만 없다면 자신은 있다”며 “시즌 끝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는데 다치고 나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 아프지 말자는 생각뿐이다. 아프지 않고 풀타임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 페퍼스에 ‘등지’

GS칼텍스에 신인 지명권 주고 영입 오늘 경기 출전...리시브 안정 기대

프로배구 국가대표 오지영(34)이 광주 AI페퍼스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 AI페퍼스 배구단(구단주 장매튜)은 “GS칼텍스 리베로 오지영과 페퍼스가 보유한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맞교환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지영은 2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오지영은 정음수정조, 전주근영중, 전주근영여고를 졸업한 뒤 2006-2007시즌 신인지명에서 전체 4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KGC인삼공사와 GS칼텍스를 거쳤다. 리베로로 2017-2018년 V리그 베스트7, 2018-2019년 V리그 베스트7에 선정됐다.

그는 2010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리베로로 활약했다. 도쿄올림픽 8경기에 출전해 총 디그(164개), 세트당 디그(3.10개) 모두 1위에 올랐다. 오지영은 리시브 효율(32.99%) 여자 배구 7개 구단 중 최하위인 페퍼스의 수비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지영은 “시즌 중 트레이드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페퍼스로 오게 돼 기대가 된다”며 “AI페퍼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GS칼텍스 구단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수 AI페퍼스 감독대행은 “신생구단의 장기적인 팀 빌딩 관점에서 베데랑 리베로의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지영의 리베로 경험이 우리 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팀에 잘 적응해 AI 페퍼스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I페퍼스로 이적한 리베로 오지영. /연합뉴스

체육기자가 뽑은 올 최고 뉴스 ‘월드컵 16강’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체육기자가 뽑은 2022년 최고의 국내 스포츠 뉴스는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해 온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낭보였다. 연합뉴스가 전국 50개 전자 계약 회원을 대상으로 12~19일 진행한 연례 ‘스포츠 10대 뉴스’ 선정 조사에서 36개 회원사가 ‘한국축구, 2022 카타르 월드컵서 12년 만의 16강 진출’ 항목에 1위 표를 던졌다. 10대 뉴스 2위는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 최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의 쾌거가 차지했다. 1위 표가 월드컵 대표팀에 몰렸는데도 손흥민은 총점 44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우승과 실외선수권 2위를 차례로 달성한 남자 높이뛰기 수상현(26)의 화려한 비상이 3위(총점 256점)로 뒤를 이었다. 황선우(19·강원도청)의 역영은 5위(181점)에 자리했다. 황선우는 올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룡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박태환 이래 한국은 11년 만에 메달을 수확했다.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에도 선전한 쇼트트랙의 질주와 한국선수단의 선전이 9위(135점)를 달렸다. SSG 랜더스의 KBO리그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제패(233점), ‘타격 5관왕+MVP’ 이정후 한미일 프로야구 최초로 부자 MVP 완성(173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21년간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147점) 등 프로야구 소식의 각각 4위, 6위, 7위에 올랐다. 무려 17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 정상에 울산과 대한축구협회(FFA)컵 우승으로 6연패 좌절의 아쉬움을 달래 라이벌 전북의 희비 상곡선이 8위(138점), 유럽프로축구로 세리에A로 옮겨 괴물 수비수로 찬사를 끌어낸 김민재(26·나폴리)의 활약상이 10위(80점)를 형성했다. /연합뉴스

남녀 바둑사 새로 쓴 신진서·최정...한국기원 10대 뉴스 선정

신진서 9단이 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키며 역대 최다상금을 쓸어모았고, 최정 9단은 여자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2022년 바둑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36개월 연속 랭킹 1위를 달리는 신진서는 올해 누적 상금 14억4195만원을 기록하며 2014년 이세돌 9단의 14억1030만원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다 상금왕에 올랐다. GS칼텍스배 5연패에 성공하며 1996~1999년

이창호 9단의 선수권전 최다연패 기록(천원전 4연패)도 갈아치웠다. 최정은 2022 삼성화재배 결승에 오르면서 여자 프로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1992년 중국 루이니아웨이 9단의 응씨배 4강 진출을 30년 만에 뛰어넘은 최고 성적이다. 다만 결승에선 신진서에게 밀려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다. 국내 상위 랭커들의 활약도 쏠쏠했다. 박정환 9단은 제1기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

전, 제23기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우승으로 국내 대회 2관왕에 올랐고, 강동운 9단은 YK건기배에서 6년 5개월 만의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신민준 9단은 ‘입단 동기’인 신진서를 물리치고 생애 처음이자 역대 열 번째 명인에 등극했고, 오유진 9단은 제5회 오정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밖에 지역자치단체팀의 국내 3대 리그 우승, KB 바둑리그의 양대 리그제·승점제 도입, 호반배 등 신생 기전 탄생, 입단 후 첫 우승자 7명 배출, 프로기사 수 400명 초과, 대한바둑협회·한국프로 기사협회 신입회장 취임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전돌맨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울베미
4관	전돌맨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아바타: 물의 길, 영웅
9관	영웅

7관 씨네카를: 영웅,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드깨비와 7개의 세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카를: 전돌맨,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눈의 여왕5: 스노우 프린세스와 미러랜드의 비밀,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2023-01-17(화) 19:30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524-5086